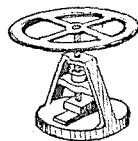


科學技術振興法에 대한

行政的 與件 欠如에 대하여



한국일보 科學部長 沈 昇 澤



우리나라는 뒤늦게나마 科學技術振興法을 갖게 되었으며 科學技術行政을 전담하는 科學技術處의 創設을 보았다.

全文 15條로 역어진 이 科學技術振興法은 이 나라 科學技術振興에 관한 綜合的

인 基本政策과 計劃을 樹立하고 그 施行을 위한 體制의 確立, 財政措置와 講究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産業의 發展과 國民生活의 安定向上에 寄與 할 것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목적은 더 말할 나위없이 自然科學과 이에 밀접히 연관있는 社會科學의 原理原則, 그리고 그의 성과를 이용하여 보다 빠른 걸음으로 産業을 開發하고 나아가서는 社會福祉를 增進하는데 깊은 뜻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國家와 行政機構는 科學技術振興에 관한 施策을 講究하여 國民의 自覺的인 科學技術研究活動을 獎勵하며 保護育成하고 認識昂揚과 産業의 現代化를 촉구하기 위한 科學技術調査와 새 技術의 普及 및 指導에 필요한 施策을 講究 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이에선 충분한 調查와 計劃의 수립, 實踐方法이 면밀하게 짜여져 있어야만 할 노릇이다.

人力開發이며, 研究開發이며, 資源開發에 이르기까지 그 모두가 立體性있게 다루어 지는 것 이외에도 이들을 뒤 밀어줄 충분한 科學技術

基金의 확보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러한 基本問題들을 條文으로 엮어 法制化한 것이 바로 67年 1月 26日 公布 實施 중에 있는 法律 第1840號의 科學技術振興法이라 하겠으며 科學技術振興法 施行令이 67年 7月 7日 뒤 따름에 따라 科學技術行政의 軌道를 마련해주었다.

그러나 지난 4月 21日 意慾滿載하고 出航한 科學技術處 즉 이 나라 科學技術 振興事業은 7個月 이지만 오늘을 겪는 동안 때로는 難船의 쓰디쓴 實望感마저 맛보게 했었다.

그 까닭인즉 人件費 4百30萬원과 豫備費에서 얻은 5百萬원을 합쳐 9百30萬원을 갖고 떠났기 때문에 불과 3個月만에 財政苦渴 상태에 빠지는 등 위기를 겪어야만 했다.

또한 科學技術處는 68年度 豫算 52億2千百萬元(韓國科學技術研究所 14億원, 科學技術運營基金 15億원포함)을 요구 했었으나 지난 8月 10日 政府와 與黨은 3分의2 이상을 대폭 삭감된 16億9千3百萬元(韓國科學技術研究所 10億원포함)으로 策定하고 말았다.

要求 豫算 52億2千萬元속에는 科學技術振興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科學技術基金 15億원과 傘下機關 및 學術團體 補助金 8億원이 껴져 실질적인 究研活動의 育成은 무참하게도 좌절, 마비상태에 빠질수 밖에 다른도리가 없게 되었던 사실이다.

모든일은 動機와 趣旨를 구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有終의 美를 거두는 법이다.

모처럼 新發足を 보게된 科學技術處는 科學技術基金制度, 科學技術後援會, 科學技術會館

등 3大事業을 밀고 나가므로서 科學振興「법」을 일게 할 작정이었다.

이밖에도 필연적으로 닥아올 電子計算機時代에 대비하기 위하여 電子計算機 開發 7個年計劃을 갖고 4億7百萬원을 요구했지만 겨우 2千7百萬원으로 각여 여러모로 意慾을 꺾었다.

여기서 특히 납득할수 없는 現象인즉 科學技術行政의 母體를 이루는 科學技術振興法 第11條에 明示된 科學技術振興 基金의 運營規定이 8月 8日 大統領令 第3175號로 서둘러 게다가 소급해서 公布 하였음은 新年度 豫算策定이 進行되고 있는 도중 이었다는 대서「타이밍」이 들어맞지 않았음은 더 말할것도 없겠지만 科學技術振興事業의 「키포인트」를 이루는 基幹 施策을 沒 理解한 豫算當局에 대한 원망은 몹시 컸다 하겠다.

이렇듯 科學技術處가 發足함에 따라 科學技術振興法の 첫 實施에서 차질을 가져다주게 했음은 몹시 서운한 일이 아닐수 없다.

이에 자극된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는 8月 12日 緊急 議長團會를 召集하고 科學技術振興의 重要性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보다 충실하게 成功시키려면 科學技術의 振興과 이를 産業開發에 應用하는 길이 가장 현명 함을 強調, 重點施策을 呼訴하는 建議文을 採擇하여 朴大統領을 비롯한 國會와 要路當局에 전달했다.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는 國內 91個 學會와 技術協會들을 總 網羅하여 이를 代表하는 機關으로서 66年 5月 19日과 67年 5月 19日 두 차례에 걸친 全國科學技術者大會에서 이 나라 科學技術振興活動에 대한 對政府 建議文을 전달 한바 있었다.

하지만 科學技術界가 것처럼 熱望했던 科學技術振興 行政機構의 確立과 이에 따르는 科學技術振興事業의 育成과 獎勵施策에 대한 關心을 기우려 주도록 줄라졌지만 첫 豫算策定 反應은 그리 시원치 않은 현실을 가져다 주었으니 말이다.

물론 施策 이전의 財源上的 難關을 극복하기

위해 부득히 했던 일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頭腦 資源開發에 投資하는 迫力이 너무나 유약 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科學技術振興法の 形式化를 우려하고 있었다 하겠다.

科學技術處가 開店한것은 지난 4月 21日, 그러니까 약 7個月전 일이다.

새 살림을 차린 科學技術處는 政府機構改編에 따르는 막내등이면서 人件費 4百30萬원과 豫備費에서 5百萬원, 도합 9百30萬원을 손에 들은채 발 걸음을 내딛었으니 그 出發부터가 인색한 살림이 아닐수 없었다.

처음부터 무리한 與件을 안고나선 科學技術行政이 고민 해야만 했던일은 여기에 끝나는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科學技術振興法을 밑 바탕으로 하나 들썩 改善 또는 再檢討해 나가야 할점, 이만 저만이 아니다.

현재 科學技術處는 科學技術振興委員會, 人力開發委員會, 原子力委員會를 長官 직속에 두고 原子力廳, 中央觀象臺, 國立地質調查所의 外廳을 거느리고 있다. 표(설명)

좀더 구체적인 機構를 더듬어 보면 다음 第1表와 같이 構成되어 있음을 알수있다.

모든 問題들을 解剖分析해 들어가기에 앞서 科學技術振興法에 따르는 行政的與件의 「키포인트」를 이루는 人的構成要素가 검토 될 필요가 있다.

즉 科學技術行政을 다루어 나가는 行政職과 技術職의 對比를 무시할수 없을 것이다.

第2表에서 볼수있는 바와같이 科學技術處 本廳「티오」 2백40명중 長 次官, 秘書와 雇員 2等 別定職을 제외한 1백74명중 行政職이 89% 技術職이 11%가 實務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말하자면 客觀的으로 인식과는 판이하게 다른 人的 構成을 지니고 있어 科學技術處 답지 않은 現象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는 正反對로 外廳 機構의 綜合的인 人的 構成을 보면 行政職이 2백41명으로 31%

定員에 대한 資料

行政職對 技術職 對比表(第 2 表)

등급별	기 구 별	본 체		원자력청		중앙관상대		지질조사소	
		행정	기술	행정	기술	행정	기술	행정	기술
1 급		1	10		7	1		1	
2 급		2	9	1	21				2
3 급		36		18	81	2	55	3	18
4 급		90		19	42	9	87	9	62
5 급		26		11	21	8	114	4	8
계		135	19	49	172	20	256	17	90
비율		89%	11%	23%	77%	7%	93%	16%	89%

(1967. 4. 30 現在)

綜合比率

行政	技術	計
241	537	778
31%	69%	100%

地質調查所
中央觀象臺
原子力廳 合計比率

行政	技術	計
86	518	604
14%	86%	100%

를, 技術職이 5백37명으로 69%를 이루고 있다. 이렇듯 科學技術處는 技術職 優位의 行政機構임은 물론 事務 自體의 대부분이 科學技術에 背景을 두고있음은 더 말할 나위없다.

現代式 科學技術行政은 經濟學者, 社會科學者, 심지어는 科學評論家들이 포섭되어야 할 일이며, 技監과 校正職들이 당연히 人事 配置되어야 할 일이 아닐까 한다.

發足과 동시에 이러한 現象을 이루게 한것은 施策의 責任者인 科學技術處長官 方針 이전의 制度의 모순이요, 先天的畸型 이라고 불러 볼수있는 노릇이 아닐까?

이러한 制度는 科學技術處가 發足 하자 마자 즉각적인 「렌드캡」을 이루어 첫 記者會見에서 質疑의 焦點을 이룬바 있었으며 長官자신도 是正의 여지가 있음을 自認, 하나의 宿題거리를 갖게했다.

科學技術行政의 頂上을 이루는 科學技術處

는 企劃管理室과 研究調整室의 두 動脈과 振興局, 國際協力局의 두 靜脈으로 循環 및 呼吸 機構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構造가 과연 完備한 것인지 또는 柔弱하기 짝없는 것인지는 딱부러지게 評價할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完全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 까닭인즉 行政業務 容量에 비해서 機構의 縮少感을 갖게한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科學技術振興法의 第7條 第8條, 第9條에 明示되어 있으며 同法의 뼈대를 이루고있는 人力, 研究開發, 資源開發의 3大要素를 다루는 淸직한 實務 動脈을 상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科學技術行政機構의 당초 創立意圖와 距離를 멀게했다는 데에서이다.

그뿐아니라 高度한 科學技術을 產業開發에 適用시킬 應用技術을 普及시키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機構마저 두드러져 있지 못하고 있어 韓國 現實

이 切實히 要請하는 產業技術振興이 소홀히 취급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말이다.

오컨데 基礎科學技術과 應用科學技術의 有機的인 體制를 이루지 못했으며 다만 高度한 科學技術開發에만 置重한 硯보임 마져 갖게하고 있다.

이러한 體制는 科學技術行政機構를 바라던 당초의 硯원과는 달리 「핀트」를 벗어난 것만 같다.

깊이 파지고 들면 한이 없을 것이며 저마다 意見을 달리하게 되리라는 점도 미리부터 豫想할수 있는 노릇이지만 基本體制를 分析해보면 짐작할수 있듯이 國立工業研究所를 제외하고 現業機關인 中央觀象臺를 編入 했다는 것은 어디인가 認識 錯誤가 아니면 지나치게 서둘러 혼적이 보인다.

國立地質調查所의 現業機構와 研究開發 機構가 分離되어 흡수되듯이 中央觀象臺 역시 그

러했어야 옳을 일이었으며 標準局과 中央度量局도 그러한 형식을 채택, 研究機構를 흡수했어야 타당했을 것이다.

요즈음 科學技術處는 對內機構를 補強하기 위해 振興局안에 涉外課, 그리고 人力開發研究所 新設을 構想했고 國際協力局안에는 人力課와 工業所有權에 관한 施策을 다루는 開發課 增設을 模索 했기는 했지만 特許局을 흡수하는 등의 機構改編에는 아직 許多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다.

問題의 焦點인즉 經濟企劃院 技術管理局을 行政의 母體로 했으며 原子力院을 研究機關의 主流體로 해서 이루어진 科學技術處는 科學技術振興法 本來의 趣旨와는 近接하지 못 한 것만은 否認 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따라서 오늘의 科學技術處는 科學技術振興法을 施行하는데 필요한 輪廓만을 들어낸 創設과 存立의 價置만으로 만족할 단계에 이르고 있다 해도 지나친 酷評은 아닐 것 같다.

또한 科學技術處는 科學技術振興法 第5條에 따라 科學技術振興委員會를 構成, 7月24日 12명의 委員중 우선 8명만을 委屬하고 있다.

이 委員會는 科學技術處長官을 委員長으로 하고 科學技術振興관계 豫算과 科學技術에 대한 重要事項에 관하여 科學技術處長官의 諮問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

즉 科學技術界, 이와 연관성이 깊은 著名人士들로 構成된 이 委員會는 어디까지나 諮問機關에 불과한 것이며 보다 高度한 審議機關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자칫하면 形式機關의 형태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科學技術振興의 3大要素를 이루는 人力開發計劃을 보다 충실히 이끌어 나가기 위한 별개 조직인 人力開發研究所의 設立은 科學技術振興法 제6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人力開發委員會와 기결될 것으로 믿어진다.

科學技術者의 需要 供給計劃과 들어맞추기 위한 이러한 外部「시스템」들은 未來의 韓國科學技術界를 내다보는 前哨的인 施策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항상 人間이 問題되는 時代에서 특히 科學技術者 확보를 위한 人力開發과 人力開發研究所 補助에 대해 豫算상의 관심이 다소나마 기울려 졌음은 智慧 資源開發에 投資함으로서 보다 計劃的인 人的資源을 얻게 하려는데 필요성을 느낀 흔적이 있다.

科學技術振興法은 第9條에 資源의 開發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積極的이며 무거운 比重을 상실한 柔弱性을 나타내 보이고 있어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科學技術振興의 結局 목적의 하나로 손꼽을 수 있는 資源開發과 活用의 價置로 이만 저만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各 中央行政機關의 長으로부터 提出된 計劃資料를 綜合調整하는 정도의 氣력이 있을뿐 先導的인 開發計劃을 동한시 한 것 같다.

게다가 振興局안에 資源課를 틀어박는 정도의 行政機構를 마련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러한 問題는 科學技術振興法과 이에 따르는 行政的인 興件의 缺如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資源開發局으로 昇格함과 동시에 研究開發事業은 이것과도 「핀트」를 맞추어야 할 일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再檢討의 여지를 충분히 간직한 要素라 하겠다.

科學技術振興法 가운데서도 두드러지게 보이는 條項은 第11條 『科學技術基金』이다.

科學技術處가 새해 豫算에서 15億원을 要求한 까닭도 科學技術行政上 여러모로 뜰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가장 融通性이 많은 財政을 확보 하려는데 있었을 것이다.

이 基金運營에 있어서는 이미 大統領令으로 施行令마저 公布하고 있어 크게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豫算審議當局은 첫 審査에서 大統領令이 無色하리만큼 完全「적토」口座로 만들어 버렸다. 물론 豫算審議當局의 애로와 고충이 있었을 것만도 모르는바 아니지만 科學技術界는 쓰디쓴 입맛을 다셔야만 했다.

그래서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는 그래도

방관할수 없는 심각한 처지에서 政府와 國會當局에 再考를 呼訴하는 建議文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科學技術基金의 쓸모는 廣範圍하며 올바른 運營에 기대할수 있기만 하다면 調查研究에 크게 寄與할수 있을것이다.

심각한 輿論으로 번진 이 基金 策定 問題는 그후 1億원정도를 마련할수 있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모든 事業이 그러하듯이 科學技術振興事業도 마찬가지로 차치하면 名分만을 내세운 濫費의 要素도 없는것은 아니다.

또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애매하기 짝이없는 項目의 羅列에 대해 色眼鏡으로 보기 꼭 좋은 財政이 될수있을 것이다.

銳利한 豫算審議當局이 두려지게 들여다 본 결과 바로 그러함을 의아스럽게 여긴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니까 허술하게 짜여진 豫算案의 內容 자체가 막연하게 여겨진데서 그러한 결과를 가져다 준것만 같다.

아무튼 섭섭한 일이 아닐수 없는 일이면서 科學技術振興法이 伸縮性있게 다루어지려면 역시 科學技術基金의 확보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고서는 外國機關은 물론 일반 國民들로부터 寄託金따위를 얻어내기 힘들것 같다. 꼭 필요하면서도 誤解받기 쉬운 이 基金 확보문제는 여러모로 연구 해볼만한 여지를 남기고 있어 보다 뚜렷하고 實利的인 事業計劃이 없는 이상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것만 같다.

그 運營方法 여하에 따라서는 科學技術厚生金 性格을 초래할 가능성마저 짊어지기 때문이다. 行政上의 興件缺如는 아직도 많이 찾아낼수 있다.

科學技術振興法 第12條 『科學技術者의 兼職』의 制度는 現實情에서 능히 이해할수 있는 條項이다.

有能하고 稀少한 科學技術者의 效率的인 應急 活用措置를 의미하는 일일 것이다.

예를 들면 科學技術處의 研究調整官이 될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1級내지 2級의 待遇 또는 特採받을수 있는 科學技術者면서도 막상 20名 内外를 保有하는 데는 여러모로 순조롭지 못한 실정에 놓여 있다.

農林, 水産, 海洋 鑛業, 地質, 機械, 化工, 纖維, 電氣, 개스, 建設, 運輸, 通信, 醫療, 保健, 基礎科學, 社會科學등 14개 分科會로 나누어진 研究調整事業은 國內 科學技術研究開發의 最高峰을 다루고 頂上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人材들이 흔하지 않을 뿐더러 여러모로 分散되고있어 규합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6名은 傘下機關 科學技術者를 兼職(5月15日)케 했으며 3名을 常任으로 委囑(8月20日現在)하고있을 뿐이다.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하겠지만 兼職 研究調整官들에 대한 客觀 인식은 그들의 權威에 대해 회의를 갖게 한다 는것이다.

그 까닭인즉 原子力廳 또는 國立地質調查所에 職을 두고 있으면서 研究費를 査定하는 職責을 兼하게 된다면 그들 研究所에서 提出된 研究『테머』를 다시 그들 자신이 담당하게 되는 까닭에 여러모로 모순이 생길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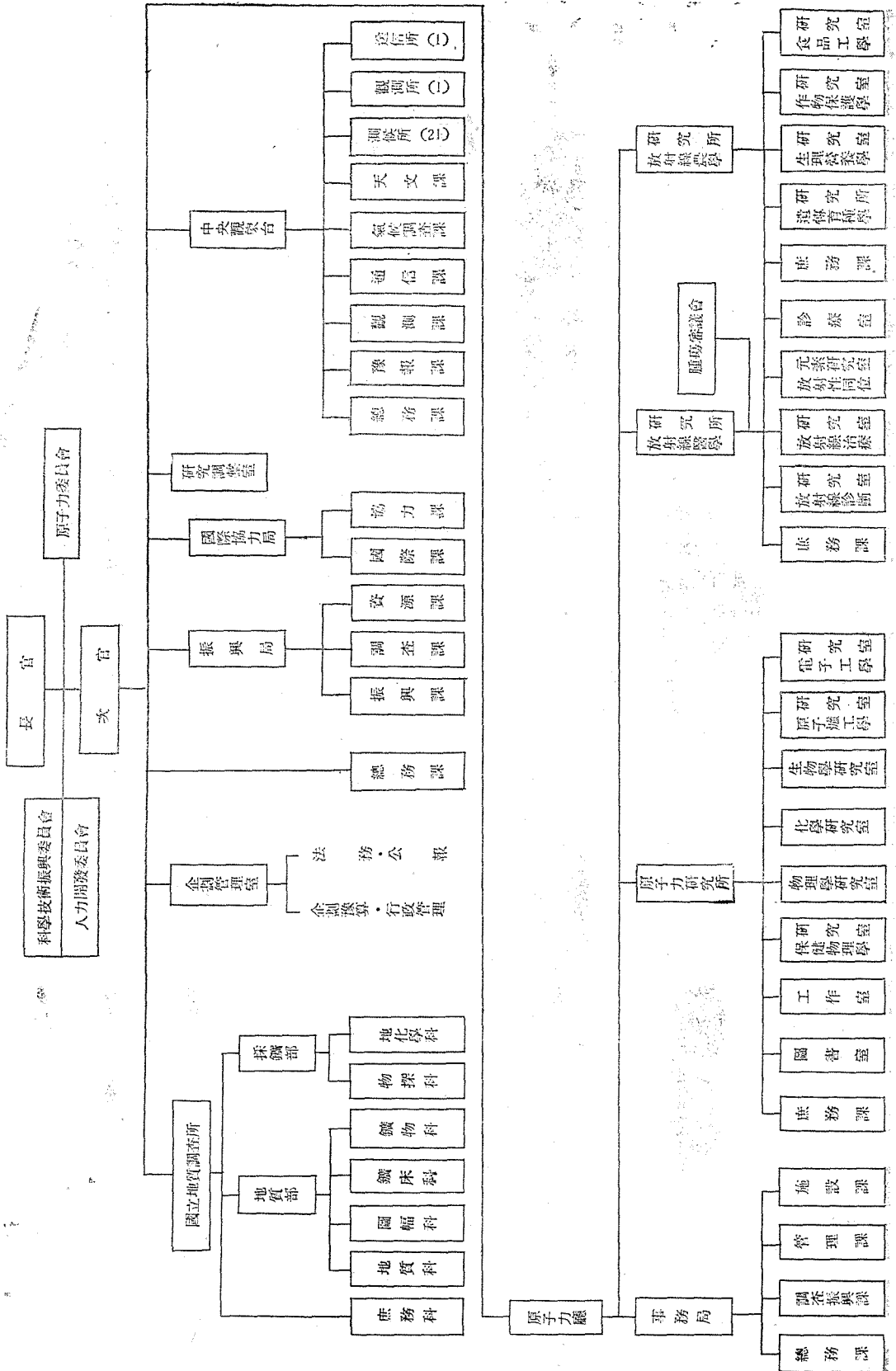
새로 委囑된 調整官들이 전담한것은 아니지만 67年度 研究開發費 9千萬원을 策定할 때 第1次 申請件數 83件에 이어 第2次 追加申請 百16件을 합친 百99件중 31件을 策定함에 있어 研究開發의 일정한 指向性이 없이 地域과 大學別등에 대한 按配形式에 흐른 감각을 엿보이게 했음은 參考의 여지가 있을법 하다.

科學技術振興法の 골자는 대체로 人力開發 研究開發, 資源調查, 技術協力, 支援事業으로 나눌수 있으며 이 5個事業을 줄거리로해서 뻗어가는것이 科學技術處가 도맡은 行政일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일은 豫算의 뒷받침 없이는 許多한 施策이 水泡化 될 것이며 科學技術振興法 자체도 死文化 될 것이 뻔한 노릇이다.

科學技術行政에 바라는 욕심은 한없는 일이다

機構表



祝 創 刊

大 韓 土 木 學 會

서울特別市 明洞二街 5~7

電話 (22) 5866

會 長 黃 程 哲

大 韓 建 築 學 會

서울特別市 中區 明洞二街 5~7

電話 (23) 4809

會 長 李 均 相

大 韓 醫 學 協 會

서울特別市 鍾路區 貫鐵洞 44~5

電話 (74) 3549

會 長 明 柱 完

祝 創 刊

理學部門 副會長

權 寧 大

工學部門 副會長

金 海 琳

農水產部門 副會長

金 浩 植

保健部門 副會長

明 柱 完

綜合科學技術部門 副會長

金 東 一

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급히 서둘러야 할 일이 있다.

韓日 工業所有權 協定에 앞서 工業所有權 政策을 審議할 委員會의 구성이 서둘러지지 않고서는 技術導入 또는 海外技術과의 協力問題를 원만하고도 有利한 방향으로 이끌수 없을 것이다.

技術導入을 비롯한, 外國과의 技術協力 行政은 工業所有權과 긴밀한 연관성을 맺고 있기 때문에 特許問題는 날카롭게 다루지 않고서는 科學技術行政의 虛點을 들어낼것만 같다.

이 問題를 다루는 時期는 오히려 지나치게 늦고있어 核心을 잃고있는기분 마저든다.

또한 科學技術振興法이 뜻하는 國內産業開發에 이바지하기 위한 機構編成의 缺如를 是正해 나가야 할것 같다.

즉 朴大統領이 뜻하는 科學技術振興이란 결코 언뜻에 있는것이 아니며 가까운 발등 밑에 있다 할것이다.

海外市場開發과 國內工業生産員들의 質과 量을 보다 科學的으로 처리하며 보다 빠른 시일안에 工業水準 내지는 農業技術水準을 올리라는데 있을 것이다.

지난해 11月 靑瓦臺에서 열린 第10次 輸出振興委員會에서 朴大統領이 指示한 科學技術行政機構를 서둘러 추진하게한 뜻이 바로 그래서 이었음을 알수있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해 7月 經濟企劃院에서 완성된 第2次 科學技術振興 5個年計劃 역시 朴

大統領이 뜻하는 施策을 反影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서둘러 만들어진 現 科學技術振興法은 여러모로 再檢討되어야 할점이 發見되고 있다.

文敎部에서 장악하고 있는 各大學에 지급되는 自然科學研究費의 科學技術處 예속 單一化는 물론 科學徒의 主管, 科學館의 운영등 모두가 科學技術行政으로 예속됨이 옳을것 같다. 이밖에도 중요한 일이 있다면 科學技術研究開發과 연관성이 깊은 豫算은 科學技術行政이 主導하는 先審制를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할일이다.

아무튼 아직은 많은 屈曲과 問題點을 안고 있는 科學技術行政의 앞날은 이나라를 繁榮의 大路로 줄다름치게 할 希望의 열쇠를 지니고 있어 막중한 그의 責任을 더말할 나위없다.

하지만 洋洋한 展望을 갖고 運般하는 보람을 맛보게 될것이다.

發足한지 겨우 7個月이 지난 科學技術處도 지난 10月 20日 記者會見席上에서 『開廳 9個月의 業績』을 公開한일이 있다.

지극히 짧은 시일안에 이루어진 이른바 『實驗報告書』라 하겠다.

이 業績報告書를 날날이 훑어보면 意慾이 넘쳐 흐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가다듬어 나가야 할 일은 하나들이 아니다.

6個月의 實驗報告書를 놓고 너무 조급한 요구는 무리한 일이다. 그러나 그간의 業績은 方向性을 어떻게 料理 했는가를 알아보는 계 좋은 參考資料가 될 수 있다.

